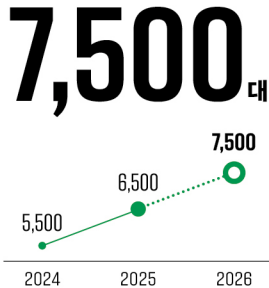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타슈

대전을 누비는 타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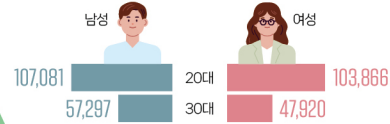
2026년 최종계획



타슈 회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520,950명



대전의 자전거 도로

2023년 기준

약 937 km

2019년 대비 약 21.7% 증가



1일 평균 대여 건수

2024년 기준

15,703건

자전거당 이용횟수 1,173건

1일 자전거 회전을 3.20회

타슈로 달리는 탄소중립 도시, 대전

타슈, 따릉이, 어울링- 이는 전국 공영자전거의 이름이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시의 노력 속에서, 자전거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그 중심에 타슈가 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타슈는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며 도시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본 브리프는 타슈가 대전시의 탄소중립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환경적·교통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타슈

#자전거

#공영자전거

#자전거선진도시

#녹색교통수단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자전거 도시로 조성하다

탄소중립 도시를 향한 실천, 타슈가 만드는 변화 도시 | 기후변화 위기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지금, 대전시는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 특히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핵심이다. 서울, 대전, 창원, 세종, 순천 등 주요 도시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공영 자전거를 운영 중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용을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식이다.

자전거는 보행이나 대중교통과 연계해 통행을 완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합 교통체계 구축과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다. 특히 대전의 공영자전거 '타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탄소배출 저감뿐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타슈는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통해 CO₂ 감축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교통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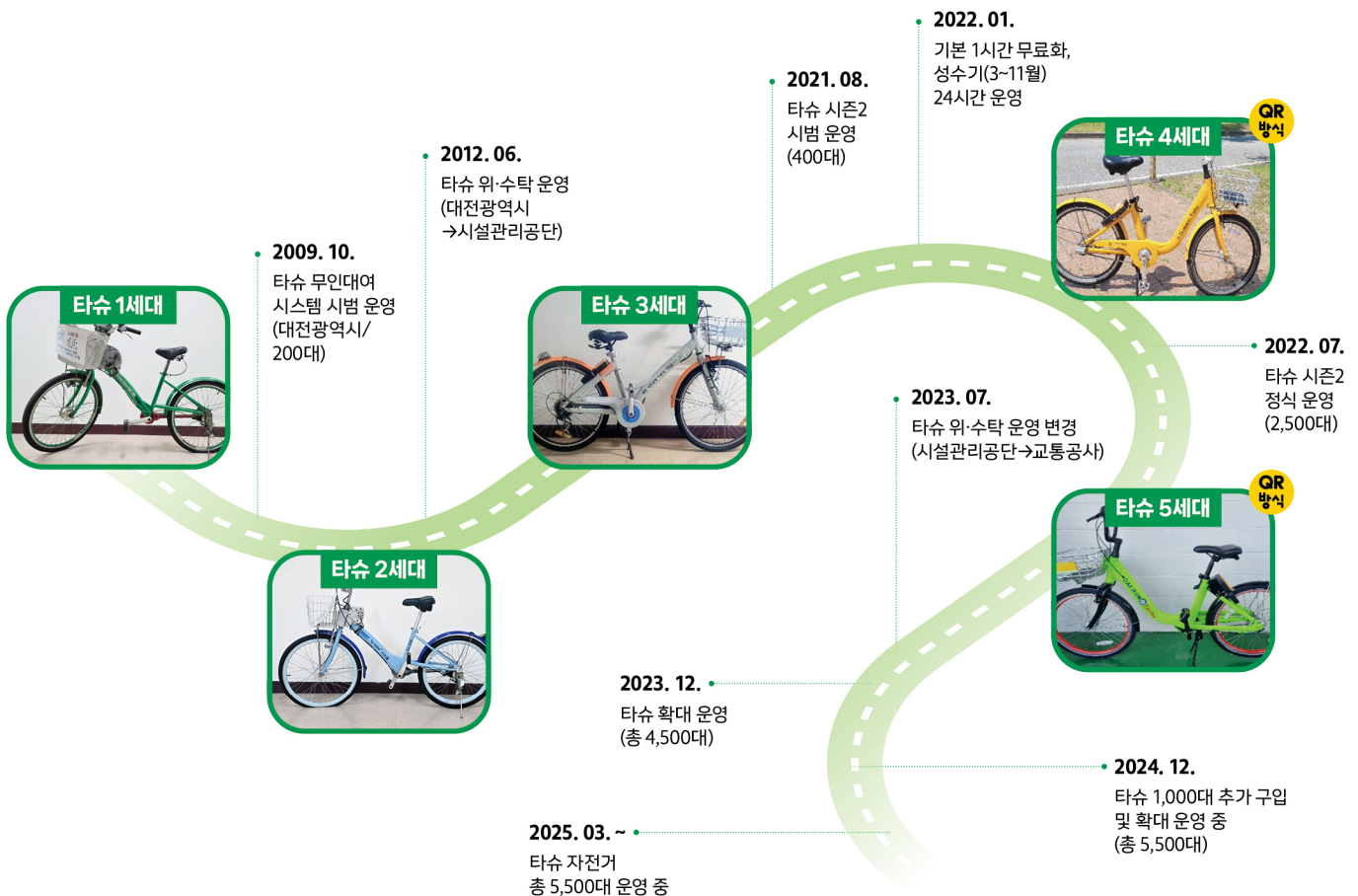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타슈'**
대전시민을 위한 녹색대중교통
수단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제

왜 '타슈'일까?
'타슈~'라는 명칭은 우리 충청도
고유의 사투리 어조로 약간
길게 부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배어나는 정겨운 이름이다.

무인대여시스템 도입을 통해 편의성을 높인다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 현황 |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는 2009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해 대전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자전거 5,500대, 대여소 1,280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7,500대, 1,500개소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 증가에 따라 무인대여시스템 개선과 자전거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 변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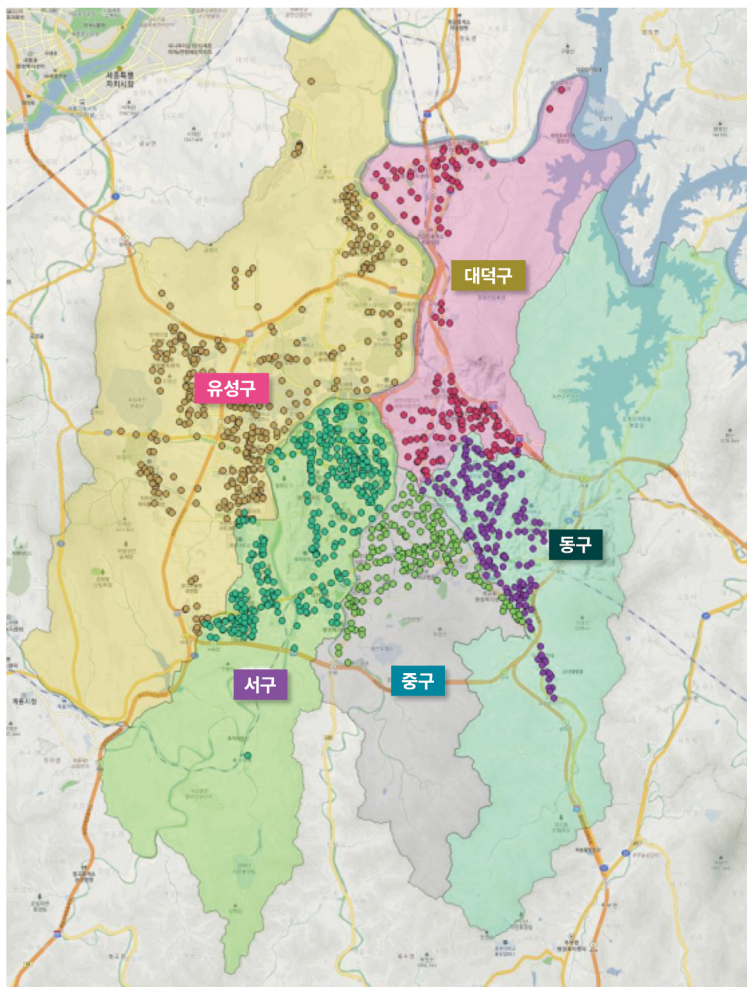


대전 전역의 촘촘한 타슈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다

타슈 자전거와 대여소 운영 및 확대 계획 | 운영 규모 확대와 시민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3년간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대여소를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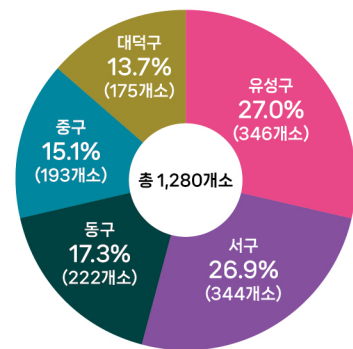
타슈는 2023년 기준 자전거는 4,500대, 대여소는 1,190개소로 운영되었으며, 2024년에는 각각 5,500대, 1,280개소로 증가되었다. 2025년에는 6,500대의 자전거와 1,380개소 대여소 운영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에는 최종적으로 7,500대 자전거와 1,500개소 대여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통해 타슈는 대전 전역의 주요 생활권과 환승 지점 중심으로 더욱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다.

구별 타슈 거치대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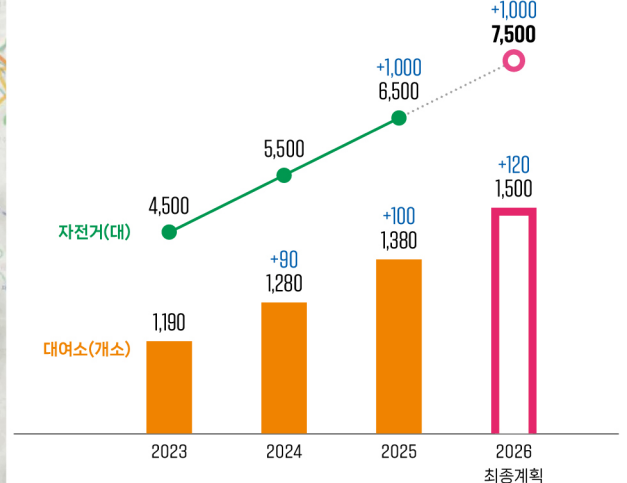


2024. 4. 30. 기준

구별 타슈 거치대 현황 비율(2024)



타슈 (자전거 및 대여소) 운영 및 확대 계획



출처: 대전교통공사 내부자료

타슈 거치대 현황 | 거치대는 총 1,280개소이며, 서구(344개소, 26.9%)와 유성구(346개소, 27.0%)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자전거 이용 수요가 높고 생활권이 넓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와 유성구에 이어, 동구(222개소, 17.3%), 중구(193개소, 15.1%), 대덕구(175개소, 13.7%) 순으로 타슈 거치대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타슈 거치대 현황 | 동별 거치대 분포를 살펴보면, '유성구' 봉명동(33개소), 지족동(29개소), 원신흥동(20개소) 순으로 거치대 분포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구' 둔산동(68개소), 관저동(59개소), 월평동(3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유성구가 전체 거치대 수는 높지만, 서구는 관공서 및 대규모 주거지 지역에 밀집된 개별 동 단위로 더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동구'는 가양동(30개소), 가오동(22개소), 용운동(17개소), '중구'는 대흥동(23개소), 문화동(23개소), 선화동(21개소), '대덕구'는 송촌동(26개소), 오정동(19개소), 중리동(16개소)의 순서로 거치대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구별 타슈 거치대 위치 현황

단위 : 개소

동구 | 222



중구 | 193



서구 | 344



유성구 | 346



대덕구 |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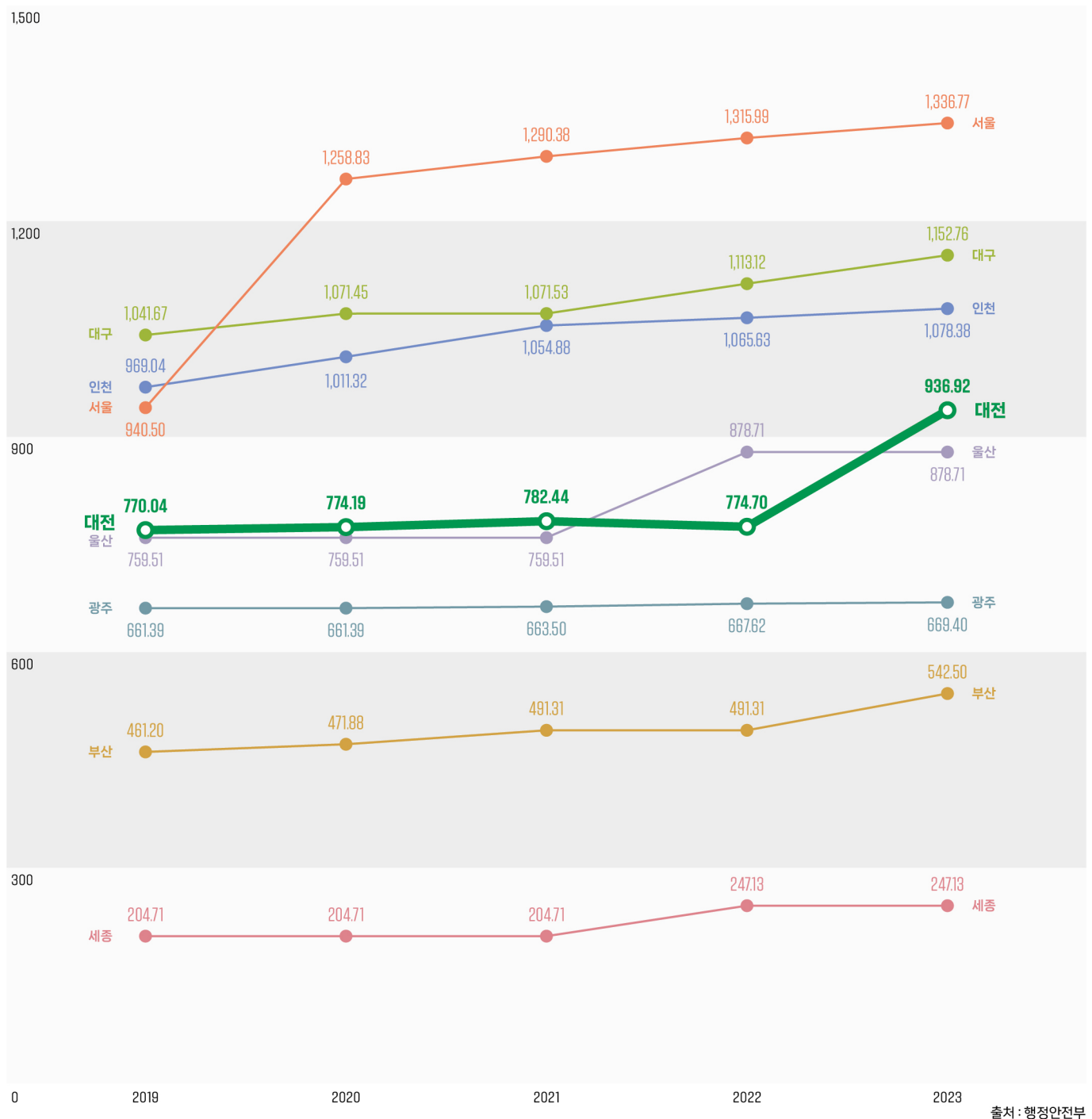


자전거도로 현황 | 대전의 자전거도로는 2023년 기준 총 연장 936.92km로, 2019년(770.04km) 대비 약 166km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도시들에 비해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1,336.77km), 인천광역시(1,078.38km), 대구광역시(1,152.76km) 등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광역시 중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시별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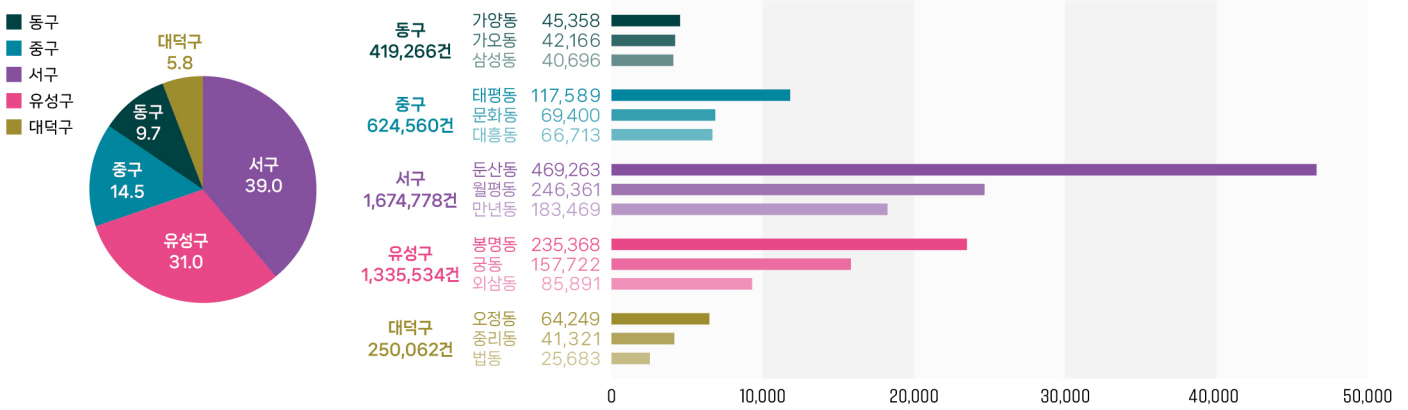
타슈, 대전 시민의 일상이 되다

지역별 타슈 대여 현황 | 구별 타슈 대여 위치 기준으로 서구(1,674,778건)가 전체 대여 건수의 39%로 타슈 이용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어서 유성구(1,335,534건, 31%), 중구(624,560건, 14.5%), 동구(419,266건, 9.7%), 대덕구(250,062건, 5.8%) 순으로 대여 건수가 나타났다.

타슈 대여가 가장 높은 서구는 둔산동(469,263건), 월평동(246,361건), 만년동(183,469건), 탄방동(178,829건) 순으로 높은 대여 수요를 보였고, 유성구는 봉명동(235,368건), 궁동(157,722건)에서 타슈 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중구의 태평동(117,589건)에서도 대여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타슈 대여 위치(2023)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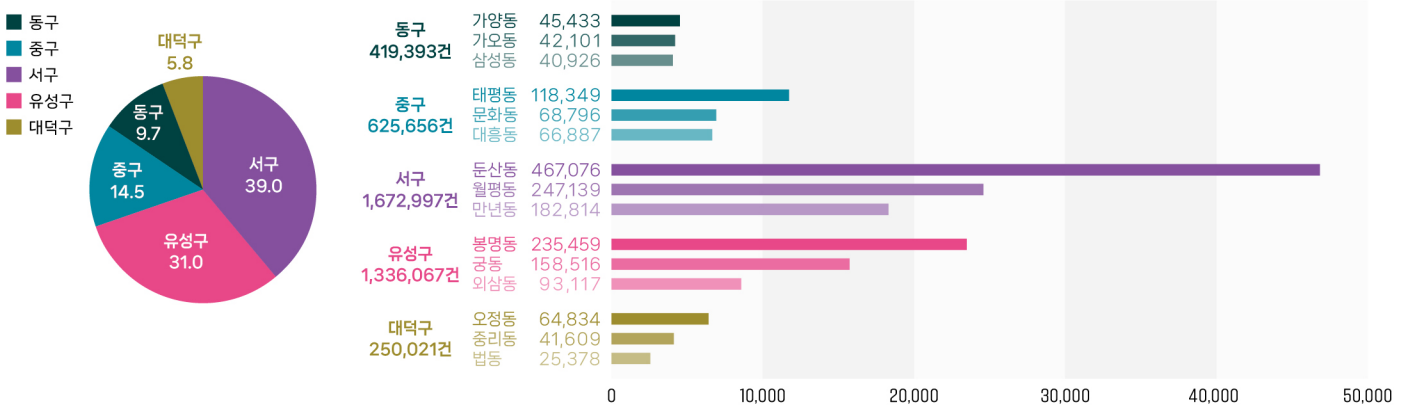


지역별 타슈 반납 현황 | 구별 타슈 반납 위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1,672,997건, 39%)가 가장 많이 반납되었으며, 이어서 유성구(1,336,067건, 31%), 중구(625,656건, 14.5%), 동구(419,393건, 9.7%), 대덕구(250,021건, 5.8%) 순으로 반납 건수가 나타났다.

서구는 둔산동(467,076건), 월평동(247,139건), 만년동(182,814건), 탄방동(178,516건) 순으로 높은 반납 현황을 보였으며, 유성구는 봉명동(235,459건), 궁동(158,516건), 중구는 태평동(118,349건)이 타슈 반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타슈 반납 위치(2023)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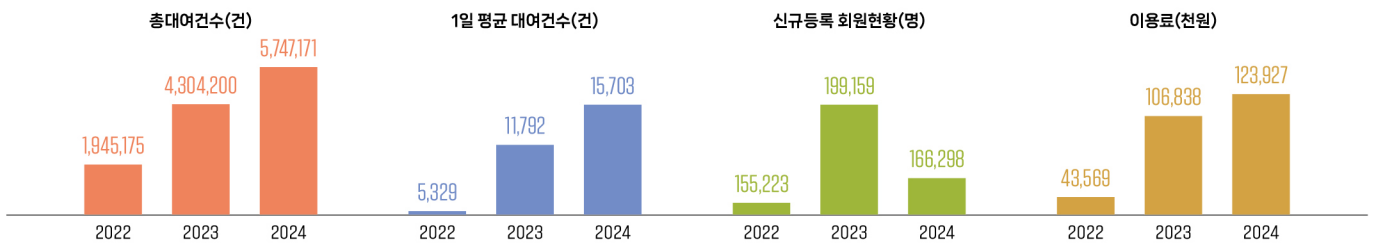


연간 타슈 이용 현황 | 타슈의 연도별 이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2년 총 대여건수 약 194만 건으로 일일 대여는 평균 5,329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430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일 대여건수도 11,79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4년에는 총 574만 건, 일일 대여는 평균 15,703건으로 급증하면서, 2022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여 타슈가 대전시민들의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타슈 자전거 및 대여소가 늘어나면서 타슈를 이용하는 신규등록 회원도 함께 늘어났는데, 2022년 기준 회원 수는 약 15만 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약 1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4년에는 약 16만 명으로 회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타슈의 전체 대여건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회원의 타슈 반복 이용률이 상승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타슈 이용 현황(202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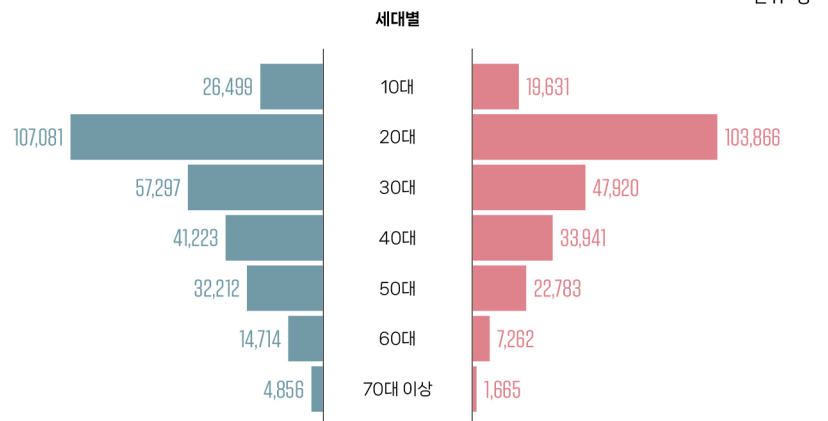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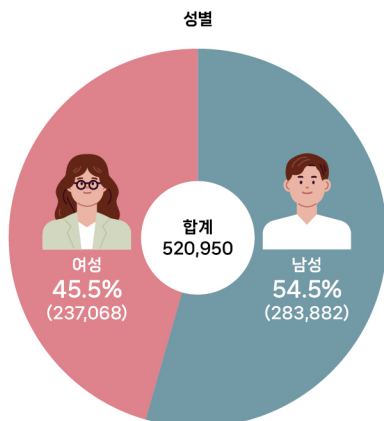


타슈 회원 현황 | 대전 공공자전거 타슈의 총 회원은 2024년 12월 기준 총 520,9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남성은 283,882 명(약 54.5%), 여성은 237,068명(약 45.5%)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 회원 비중이 전체의 약 40.5%에 해당하는 210,947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105,217 명)와 40대(75,164 명) 순으로 회원수가 높았다.

10대 이용자도 46,130명으로 비교적 높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회원도 총 28,497명(약 5.5%)으로 전세대에 걸친 자전거 이용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타슈 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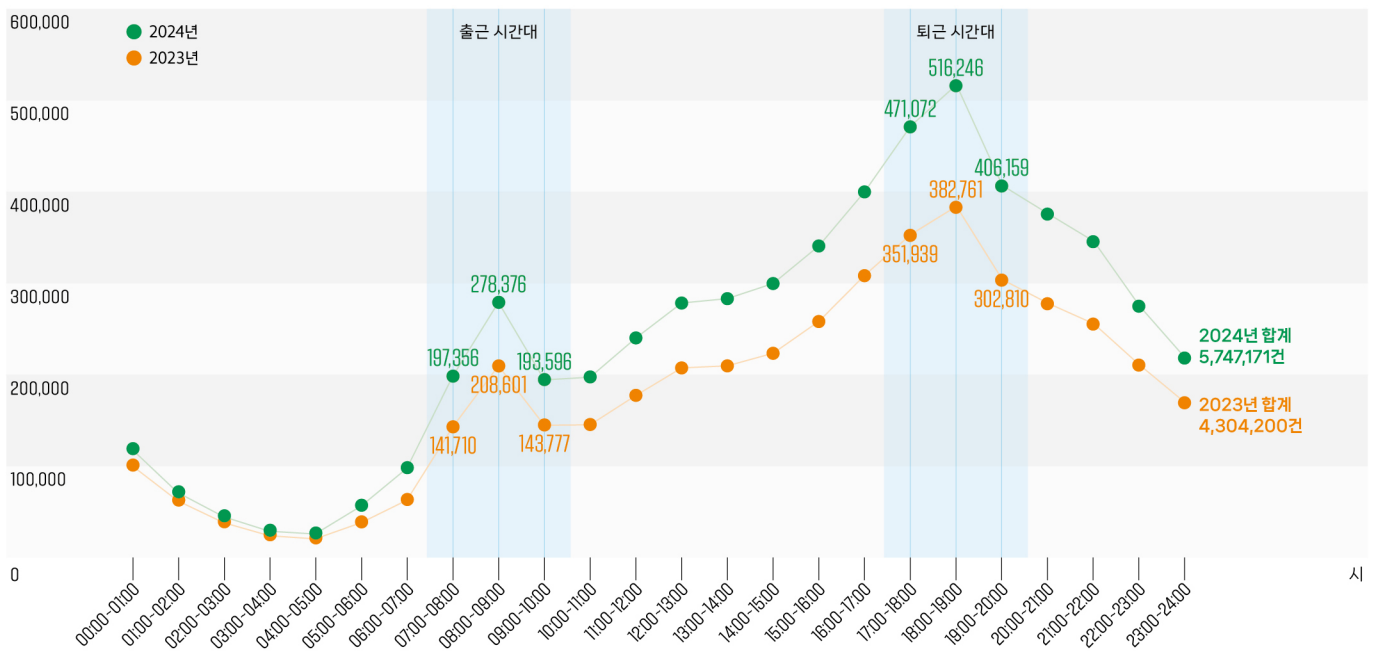


시간대별 타슈 이용 현황 | 2024년도 타슈의 전체 대여 건수는 5,747,171건으로, 2023년의 4,304,200건에 비해 약 33.5% 증가하였다. 이는 타슈 이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타슈는 출퇴근 시간대(7~10시, 17~20시)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시간대(7~10시)에는 8~9시 사이 이용량이 특히 많았으며, 2024년 해당 시간대에는 278,376건의 대여가 발생하여, 2023년 같은 시간대의 208,601건보다 약 33.4% 증가하였다. 퇴근 시간대(17~20시)는 전체 시간대 중 가장 높은 대여량을 보였는데, 특히 2024년의 18~19시 시간대에는 516,246건으로 최대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시간대의 382,761건보다 약 130,000건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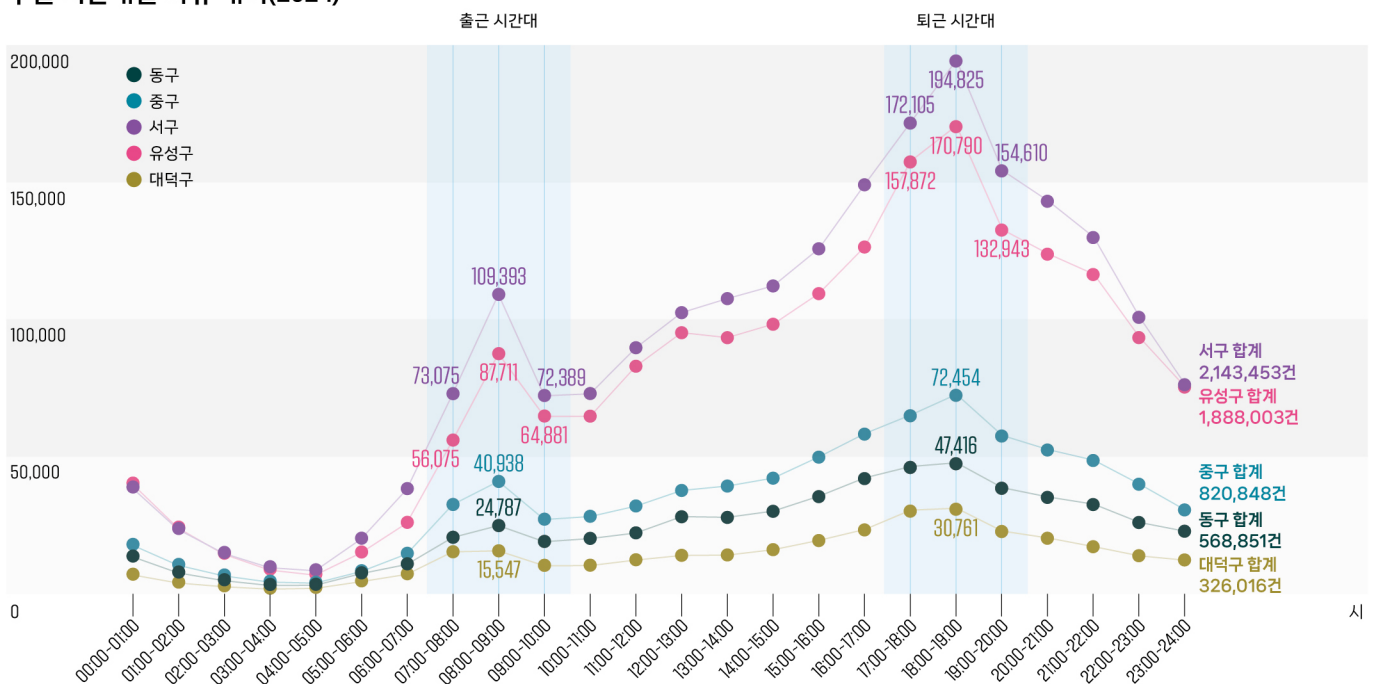
시간대별 타슈 대여(2023 vs 2024)

단위: 건



구별 시간대별 타슈 대여(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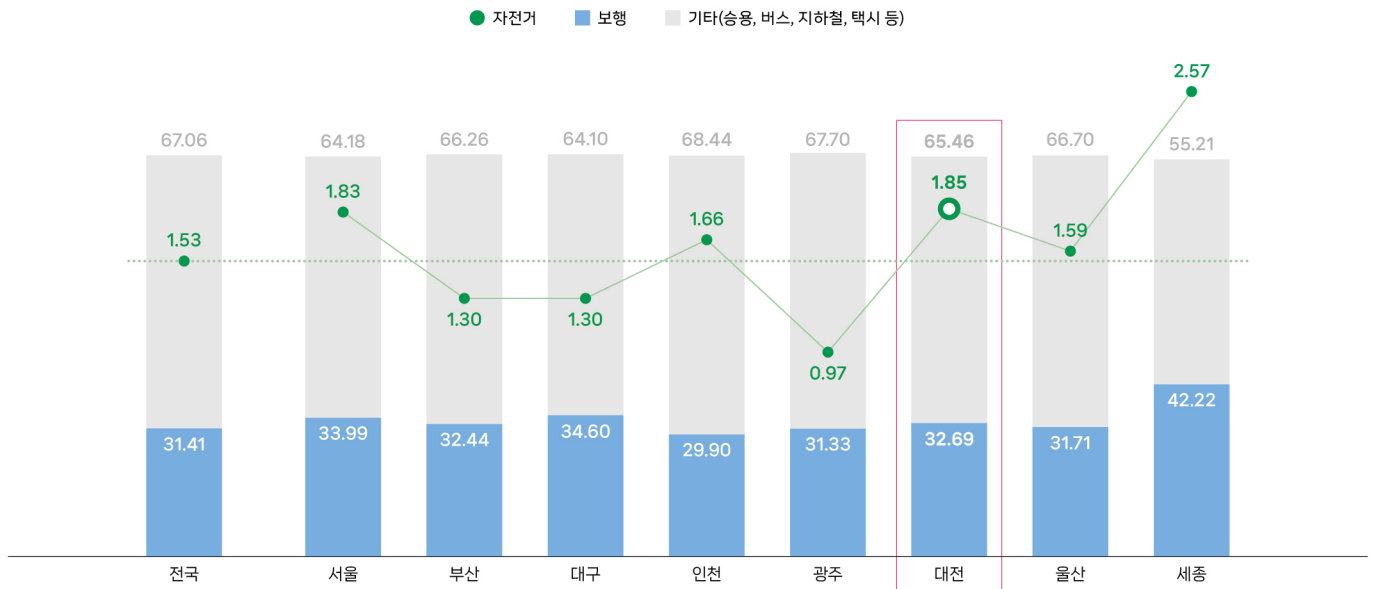
단위: 건



통행수단별 분담률 | 전국 주요 시도별 통행수단별 분담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자전거는 1.53%, 보행은 31.41%, 기타 교통수단(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은 67.06%의 통행수단별 분담률을 보였다. 이중 대전의 자전거 분담률은 1.85%로 세종(2.57%)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다음으로 서울(1.83%)순으로 나타나면서 대전은 비교적 타 도시에 비해 자전거의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수단별 분담률 현황(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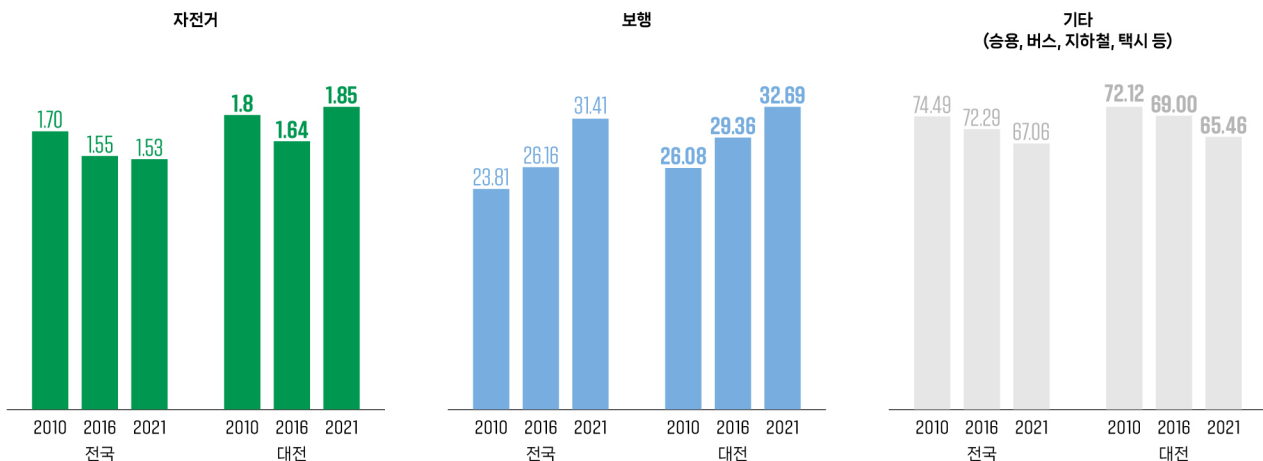
*전국 - 위의 도시를 포함하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포함한 수치임.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대전의 자전거 통행수단별 분담률은 2010년 1.8%에서 2016년 1.6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1.85%로 증가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은 2010년 1.70%에서 2021년 1.53%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기타(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등)는 분담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전거와 보행의 분담률은 증가하였다. 또한, 대전은 2021년 기준 자전거 분담률이 전국 평균(1.53%)보다 높은 1.85%로 나타났다.

전국 및 대전시 연도별 통행수단별 분담률 현황(2010, 2016, 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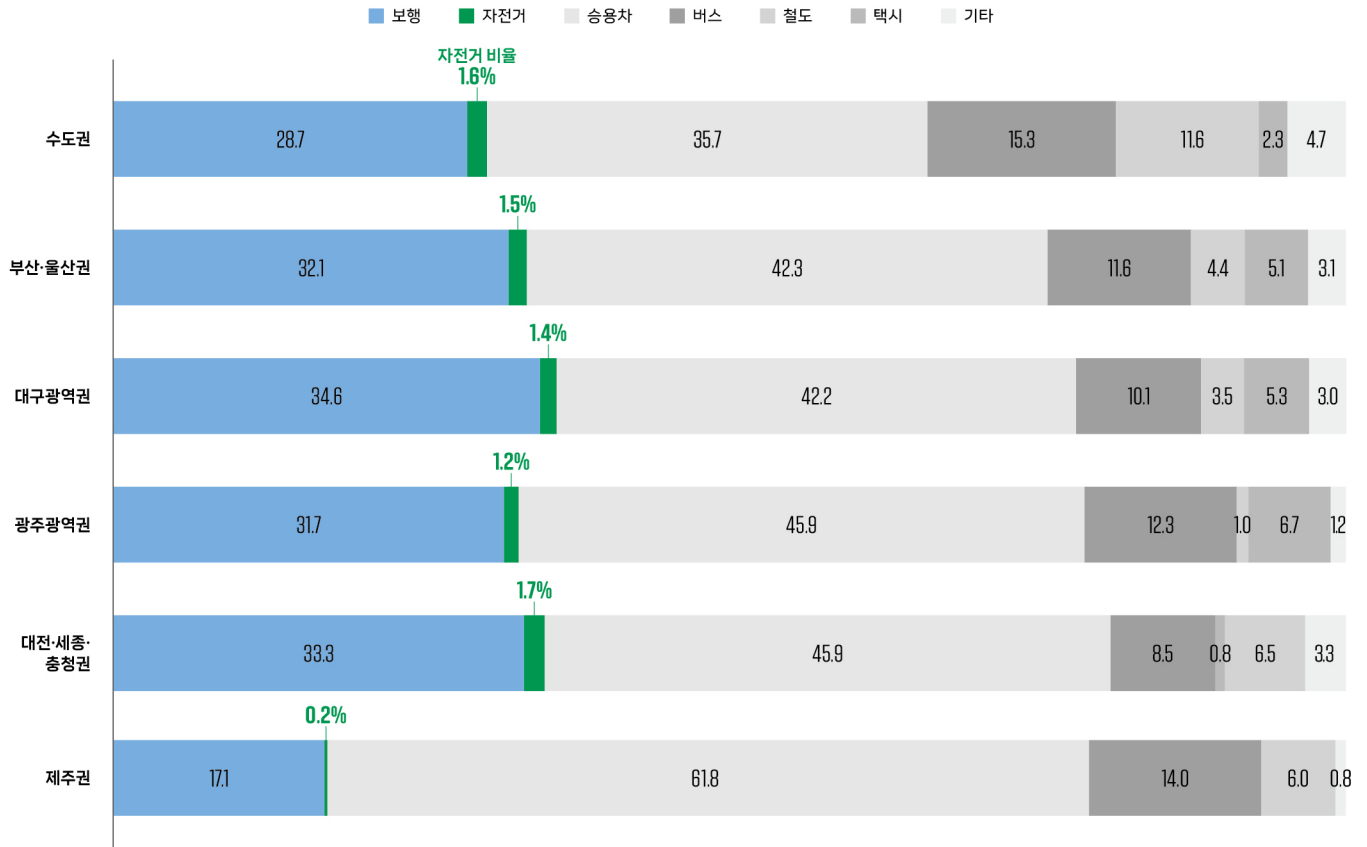


권역별 수단통행 분포 | 전국 6개 권역의 자전거 수단통행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전·세종·충청권이 1.7%로 타 권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수도권(1.6%), 부산·울산권(1.5%), 대구광역시권(1.4%), 광주광역시권(1.2%), 제주권(0.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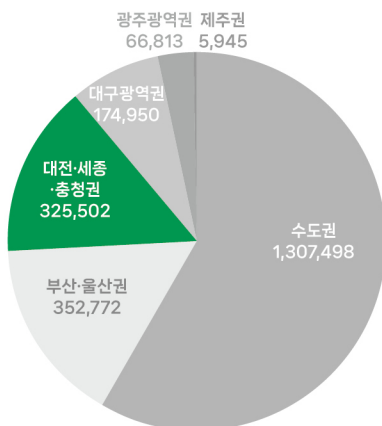
대전·세종·충청권의 전체 수단별 통행 분포를 살펴보면, 승용차가 4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보(33.3%), 버스(8.5%), 택시(6.5%), 기타(3.3%), 자전거(1.7%), 철도(0.8%) 순으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 수단통행 분포 현황(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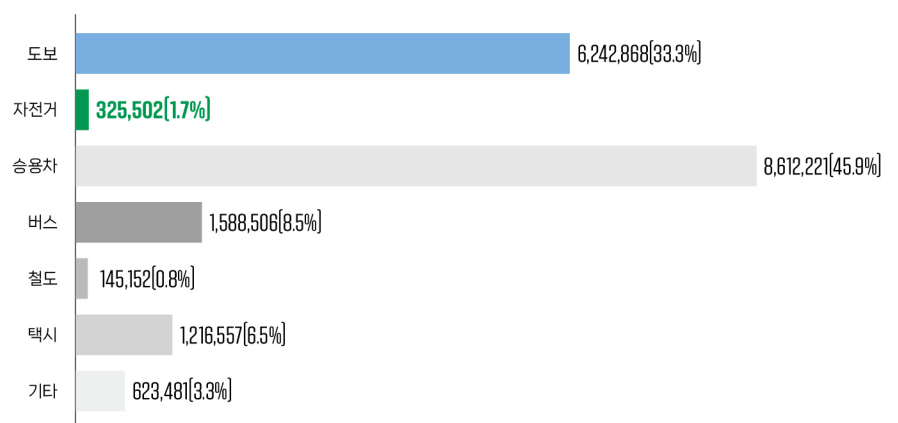
통행/일, %



권역별 자전거 통행 건수



대전·세종·충청권 수단별 통행 건수



출처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2023), 2023년 국가교통조사 및 분석 2(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주요 지자체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대전의 위치는?

대여소 및 자전거 현황 | 타슈는 2024년 기준 총 1,280개의 대여소, 약 5,500대의 자전거를 운영하며 서울(45,000대)보다는 소규모지만, 세종(3,485대), 창원(4,460대) 대비 높은 수준의 운영 인프라 확보를 통해 도심 접근성과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 횟수 | 이용횟수는 약 574만 건으로 공영자전거의 활발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타슈의 일평균 이용 횟수는 2022년 대비 이용량이 약 3배가 증가하여 시민 수요 대응력과 적극적인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다.

1일 자전거 회전율 | 2024년 타슈의 자전거 1대당 일일 회전율은 3.20회로, 창원(2.75), 서울(2.66), 세종(2.02) 대비 높은 회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루에 자전거 1대당 평균 3회 이상 시민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간 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되었으며, 대전은 자동차 중심 교통에서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의 실질적인 이동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지자체별 공영자전거 운영현황(2024)

		 대전_타슈	 창원_누비자	 서울_따릉이	 세종_어울링
2024년	대여소	1,280	443	2,766	704
	자전거	5,500	4,460	45,000	3,485
	이용횟수(일평균)	5,747,171(15,703)	4,472,880(12,254)	43,850,720(119,811)	2,582,293(7,074)
	1회 대여 운영경비	870	1,296	738	993
	자전거당 이용횟수	1,173	1,003	974	741
	1일 자전거 회전율	3.20	2.75	2.66	2.02
2023년	대여소	1,150	342	2,762	671
	자전거	2,500	4,417	45,000	3,422
	이용횟수(일평균)	4,304,200(11,792)	3,891,591(10,662)	44,905,313(123,028)	2,453,124(6,720)
	1회 대여 운영경비	976	1,593	762	694
	자전거당 이용횟수	1,722	881	998	716
	1일 자전거 회전율	4.72	2.41	2.9	1.96
2022년	대여소	1,261	285	2,719	630
	자전거	2,305	4,248	43,500	3,165
	이용횟수(일평균)	1,945,175(5,329)	4,237,703(11,610)	40,948,900(112,189)	2,447,325(6,705)
	1회 대여 운영경비	2,046	1,463	792	754
	자전거당 이용횟수	778	998	941	773
	1일 자전거 회전율	2.13	2.51	2.6	2.12

출처 : 대전교통공사 내부자료

대전시민의 스마트한 발걸음, 공영자전거 '타슈'

타슈 주요 특징 | 타슈는 15세 이상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시스템 공영 자전거로, 2009년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2022년 7월 '타슈 시즌 2'로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키오스크와 거치대 잠금장치를 통해 대여하였다면 현재는 스마트폰에서 '대전시 타슈(QR단말기전용)' 앱 설치 후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타슈 앱 소개 | 타슈의 운영 방식은 QR코드 기반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스마트락 등 기술적 특징이 있다. 타슈 앱에서는 이러한 QR코드 기반 시스템을 연계하여 개발되었으며, 앱의 이름은 '대전시 타슈'로 자전거 대여/반납(QR코드 스캔 기반), 가까운 대여소 위치 검색, 이용내역 확인 및 요금 결제, 이용 중 상태 확인 및 고객센터 연결, 자전거 길 추천코스 등의 기능이 들어있다.

타슈 이용안내

이용대상 만 15세 이상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자
대여시간 | 05시 ~ 24시
반납시간 | 24시간
성수기(3~11월) 24시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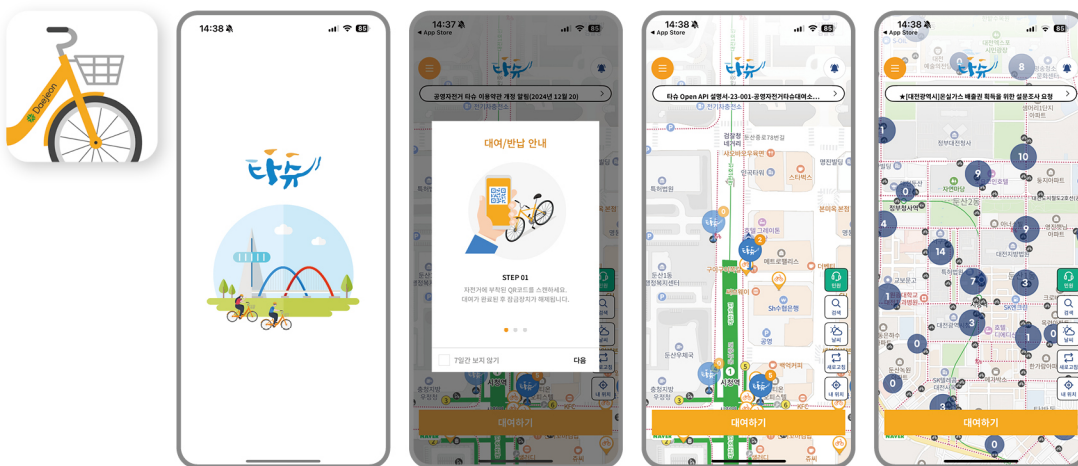
요금안내

기본 사용료 | 1시간 무료
추가 사용료 | 30분당 500원
1일 1회당 최대 추가
사용료 5,000원
* 1시간 내 반납 후 재대여하면
추가요금 없이 반복 이용 가능

타슈 알아보기

www.tashu.or.kr

대전시 타슈 앱 현황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방법 | '타슈' 앱에서 대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자전거 뒤쪽의 QR코드를 스캔한다. 대여 시작 메시지와 함께 자전거의 잠금이 해제되면 타슈의 이용이 가능하다. 반납의 경우, 가까운 "타슈 대여소"에 방문하여 자전거 뒷 부분에 있는 잠금장치를 잠금 후 전송된 반납완료 메시지(알림톡, 휴대폰문자)를 확인 하고 이동하면 된다.



출처 : 타슈 공식홈페이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자전거 도시로 조성하다

자전거와 탄소중립 동향 |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교통 혼잡 완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장기 국가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상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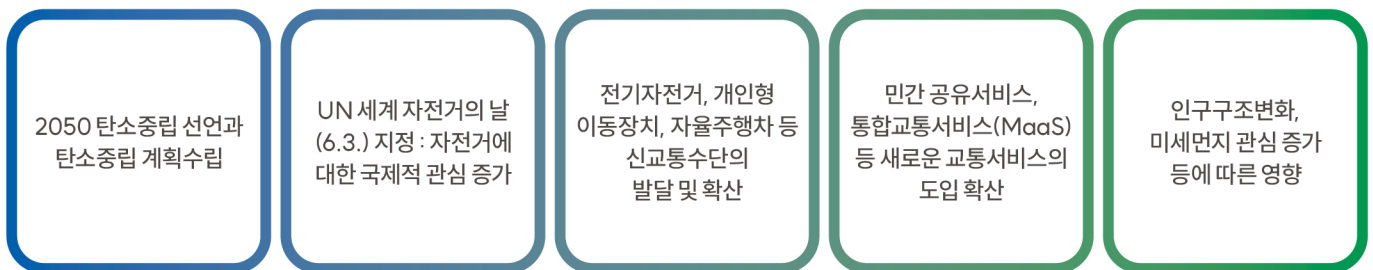
그 중 하나로,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분야)'제도에 공공자전거 이용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1km당 50원, 연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텀블러 이용, 무공해차 대여, 폐휴대폰 반납 등 12개 실천항목에 더해, '자전거 이용'도 항목으로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형식으로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전거 관련 주요 환경 및 장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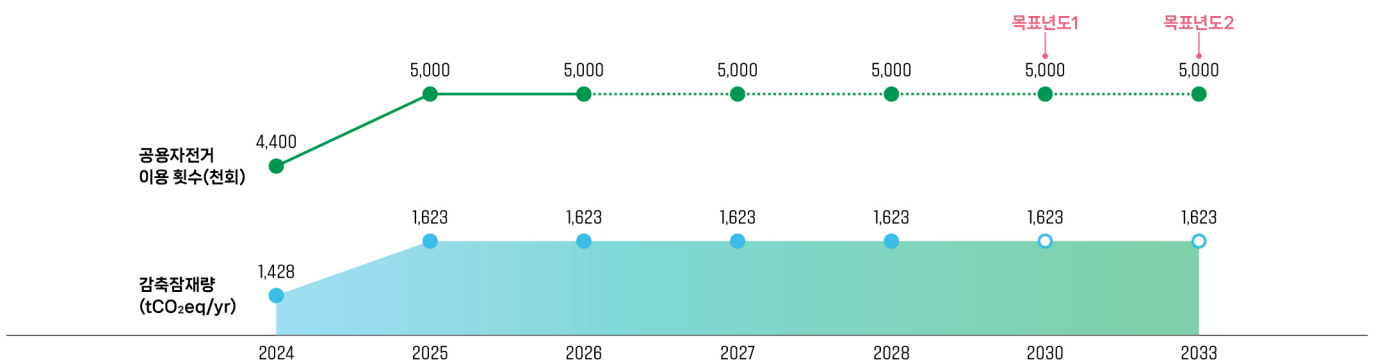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2022),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계획(2022~2031)

녹색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공영자전거 타슈 활성화 계획 | 대전광역시시는 공영자전거 타슈 활성화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수립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연차별 타슈 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았다.

2024년 약 440만회, 202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간 500만회 이용을 목표로 연간 1,623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였다.

2024년 실제 이용횟수는 574만회로 목표를 이미 130% 초과 달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확대추세에 따라 2025년 이후에도 이용횟수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연차별 이행계획



출처 : 대전광역시(2024),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출퇴근도 친환경으로, 대전의 탄소중립 한 걸음 | 대전에서는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출퇴근 문화 조성을 위해, '대전자전거출퇴근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챌린지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교통문화를 장려하고, 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교통 혼잡 완화, 시민 건강 증진 등 다방면의 효과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매년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전국광역시·도와 하반기에는 대전지역 단체 및 기관과 함께 진행되며, 챌린지 기간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대전자전거출퇴근캠페인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탄소중립시민실천 '2025 전국자전거출퇴근챌린지'를, 9월에는 '대전자전거출퇴근챌린지'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캠페인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나무심은효과 등의 환경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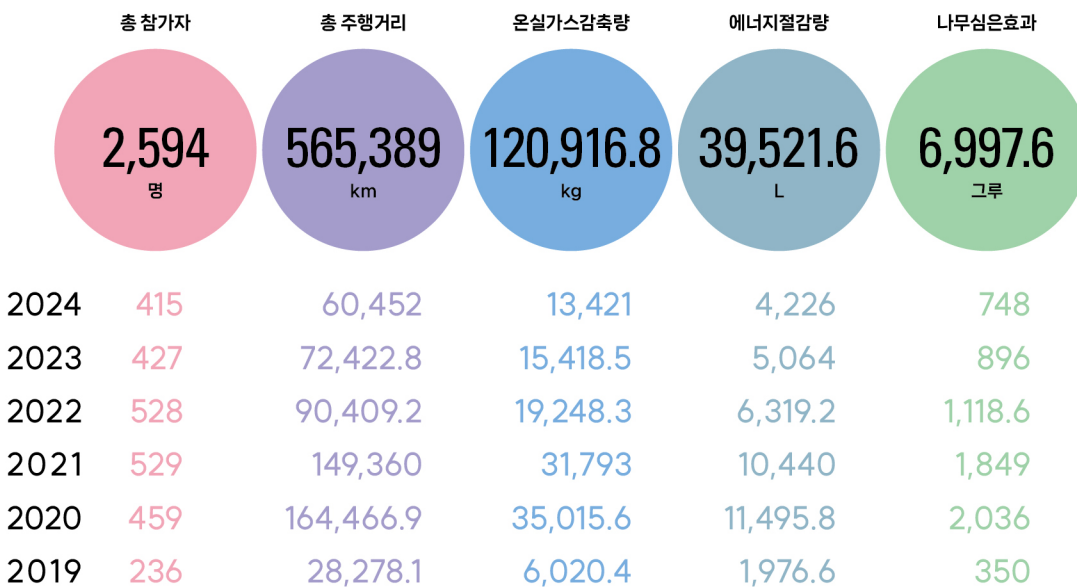
캠페인의 참여자 수는 총 2,594명으로 2024년 기준 415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자전거 주행거리는 565,389km이며, 2024년 기준 60,452km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120,916.8kg으로 2019년(6,020.40kg) 대비 2024년 총 13,421kg으로 7,400.6kg이 증가하였다. 그 밖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캠페인을 통한 에너지절감량은 총 39,521.6L이며, 나무 총 6,997.6그루를 심은 효과이다.

'대전자전거출퇴근챌린지'란?
자전거 전용 앱을 통해 이동거리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나무심은 효과로 환산하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전환하고 시민 건강과 기후대응을 촉진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이다.

'라이트브라더스' 앱을 통해 챌린지에 참여하자!
챌린지에 참여하려면, '라이트브라더스' 앱을 설치하고 자전거 주행 시 앱을 이용하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WB

대전자전거출퇴근캠페인 참여 현황(2019~2024)



출처 :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고문헌

행정안전부(2022), 국가자전거 정책 기본계획(2022~2031)

대전광역시(2024),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2023), 2023년 국가교통조사 및 분석2(전국여객 O/D 보완 갱신)

행정안전부(2024),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14), 대전광역시 공공자전거 '타슈'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Vol.25, no.2, pp. 591~608

대전광역시(내부자료)

대전교통공사(내부자료)

대전광역시 자전거 홈페이지 : <https://daejeon.go.kr/bike>

타슈 공식 홈페이지 : tashu.or.kr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https://tja21.or.kr/>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이와 같은 노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며, 저탄소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몸도 만들고, 건강한 대전의 도시환경도 만들어보자.

기후변화주간 중

대전탄소중립지원센터 소식

2025 대전 지구의 날 기념행사(지구야 내가 널 사랑해) 개최

기후변화주간(4.21.~4.25.)을 맞이하여 '2025 대전 지구의 날(제55회) 기념행사'를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전의 미래세대와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일상 속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 당일에는 환경 관련 공연과 체험형 이벤트, 탄소중립 실천방안 홍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되었으며, 약 1,000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25 대전 지구의 날 기념 세미나
(건강생활의 다른 이름, 탄소중립) 개최

'건강생활의 다른 이름,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4월 23일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에서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저탄소 식생활, 농산업 분야 탄소감축, 기후변화와 건강 등 생활 밀착형 주제를 구성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저탄소 식생활을 유도하는 정책, 농업 분야의 탄소배출 현황과 감축방안, 기후변화 시대에 필요한 건강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30회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참여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6.5.)을 맞아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모두의 행동'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을 비롯한 환경단체,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대응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행사에서 대전시의 탄소중립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 홍보 및 전시를 진행하였다.



바이오가스 수소전환 포럼 개최

바이오가스의 수소전환 기술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듣고 기술실증에 대해 민·관·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 수소전환 포럼'을 6월 26일 KAIST 학술문화관 양승택 오디오리움에서 개최하였다. 포럼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의 여건, 수소산업 국가정책,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등의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